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황 성 동<sup>+</sup>

(경북대학교)

임 혁<sup>++</sup>

(동서대학교)

윤 성 호

(동서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이주문화에 대한 상호문화적응과 통합의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다문화 태도변화를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유사실험전후비교조사설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45명)과 통제집단(47명)에서 나타나는 다문화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효과성의 지속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는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264, p=.000) 그리고 사전-추후 차이 역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t=2.466, p=.016)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사후-추후점수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교육, 다문화태도, 다문화주의, 실험설계, 프로그램 효과성

---

+ 주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이주의 시대(age of migration)'에 살고 있는 지금,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국제이주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이주민들과 주류사회 구성원간의 사회통합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오늘날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이 끊임없이 타자와 비교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천선영, 2004). 다시 말해서, 다문화사회에서는 이주민은 내국인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내국인은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야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일은 다문화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문화의 상호호혜성(cultural reciprocity)'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주된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류문화와 이주민문화간의 문화적 공존과 통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김금미, 2010).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만으로 '단일 순수혈통'을 중심으로 한 민족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인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들은 인지적으로는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이주민들에 대해 이질감을 가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두고 볼 때,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윤상우·김상돈, 2010; 이명진·최유정·최셋별, 2010). 분명 과거에 비해 관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변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는 다문화를 표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동화주의적인 다문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지적은 진정으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라고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제이주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내부에서 외부로의 지향성(emigration)은 강했지만,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immigration)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타성을 보여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즈음에 진행된 외국 노동력의 유입은 이미 선택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어촌 사회의 남녀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는 3D업종에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게 되면서, 이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와 주류사회와 이주민문화 간의 문화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사회의 대처노력은 미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간 우리사회에서 수행된 다문화 관련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향이 보편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다문화주의와 이주민에 대하여 내국인들이 어떠한 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주민과 이주민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려면, 일차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는 어떤 양태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사회가 보이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는 단일민족국가에서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모하게 된 21C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은 우리사회의 이해와 통찰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윤상우·김상돈, 2010;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2010; 인태정, 2009; 장승진, 2010). 여러 선행연구와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이주민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주민을 배척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등 다소 부정적인 다문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맹진학, 2009). 이는 우리사회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주민문화와의 접촉경험이 현저하게 낮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민문화와의 접촉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에 대해 하나의 위협적인 것으로 인지하게 되면, 이주민과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쉽다(Stephan, Diaz-Loving and Duran, 2000). 그렇지만 이주민문화와의 접촉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이주민 집단과 내국인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이민과 이주민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Hewstone, 2003).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태도의 개선은 이질적 성격이 강한 이주민문화와 주류문화간의 융합과 통섭을 선도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대학과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다문화강사 양성 및 다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자체의 개설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문화적 태도가 성숙해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민무숙·김이선·이춘아·이소영, 2009).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설령 교육적 효과로 인해 타문화권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다양한 인구집단과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미비하였기에, 다문화교육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태도 형성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연구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주류사회와 이주민간의 간문화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태도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육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 변화정도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주된 대상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로 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사회복지학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이주민과 내국인의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실천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다문화 태도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향후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필요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 그리고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게 될 때,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파생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천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은 변화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줄이고 이주민과 내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과 제도 그리고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이주민화에 대한 동화적 시각이 아닌 상호문화적응과 통합의 시각에서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함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다양성의 인지, 상호학습과 이해증진의 필요성에 따라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질문으로는 첫째,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속되고 있는가? 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란 일반적으로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획득하고 향유하는데 개인의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칭한다(인태정, 2009). 한국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관심이 집중적으로 조망되기 시작한 시기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논의하는 바는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대량유입과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다(김용신, 2009). 그래서 초기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방향이 이주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 노동시장내의 차별문제, 유색인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종차별 등과 같은 단편적인 사회현상과 이주민의 문화적응 증진에 많은 쏠림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한국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는 정

부의 정책 또한 통합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다문화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류사회(host society)에 이주민을 동화(assimilation)시키기 위한 일방향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형태들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한글교육을 강조하거나, 이주민화와 한국문화의 소통을 하기보다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형태의 동화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나타나는 바람직한 현상 중 하나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주민의 인권문제와 세계시민성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간문화주의(interculturalism)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허영식, 2009). 이것은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교류를 강조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구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문화 관련 정책입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처에서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파악된다(강휘원,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용신, 2009; 박인철, 2010; 엄한진, 2006).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주민의 양적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의 인구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내에 중대한 문화갈등 및 문화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류사회의 위기의식에 기인한 점이 없지 않다. 달리 말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의 확산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유발된 우리사회의 탄력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에 308,339명에서 2010년 현재 1,261,415명으로 10여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141,654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2020년 즈음에는 약 500만여 명(총인구의 13%)의 인구가 이주민으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이에 따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 양상 또한 기존의 단일민족의 자긍심으로 대표되는 자문화중심주의에서 한국 사회라는 지역적 공간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통합적 다문화주의로 그 무게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김용신, 2009; 박경태, 2008: 20~21; 설동훈·김명아, 2008).

그에 따라, 최근 학계와 다문화실천현장에서는 이주민들이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통섭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강휘원, 2006; 윤인진, 2008; Kymlicka, 2004; Troper, 1999).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학술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한국인이 체감하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민무숙 외, 2009; 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정혁, 2007; 오계택·이정환·이규용, 2007; 윤인진 외, 2010; 이명진 외, 2010; 인태정, 2009).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규정되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 않은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생각된다.

우리보다 앞선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사회의 경우,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이들 이주민 집단과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교육적 측면의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즉,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이주민과의 공존과 문화충돌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강진구, 2008; 김현덕, 2010; 신승

연, 2009). 그런 점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은 우리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키고, 우리사회가 보다 조화롭고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양옥경·김연수, 2007; 임혁, 2010; Ahn, 2007), 주류사회 구성원의 문화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갈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못지않게 내국인이 새로이 유입된 타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김현덕, 2007; 민무숙 외, 2009; 양애경, 외 2007). 그러므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이주민과 내국인 간에 존재하는 간문화성을 확대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회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2) 한국인의 이주문화에 대한 태도와 경향성

이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둔 연구와 이주민과 한국인과의 관계양상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이주민 수용성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김이선 외, 2007; 윤상우·김상돈, 2010). 전자의 경우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문제와 문화적응, 생활조건, 출입국 관련 실태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한국인의 문화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집단에 대한 편견과 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방향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적 태도를 조사한 박수미·정기선(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 신념이 보수적일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은 사회적 가치관과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도 다문화수용태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윤상우·권상돈(2010)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태도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성향과 세계화 인식이 강할수록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의 양적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유교적 가치와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신념과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서 다문화태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하여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문화다양성이 가져올 사회분열에 대해 우려하는 편으로 나타나 다문화사회의 전폭적 수용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윤인진 외, 2010). 그리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초보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을 뿐,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를 한국사회와 문화에 수용하고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선 외, 2007; 설동훈, 2006; 양애경 외, 2007; 오계택 외, 2007;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

현·이동주, 2007). 장태한(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들의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선호도 순위에서 미국과 유럽인, 일본인, 동남아인, 흑인과 아프리카인 순으로 나타나는 등 해당 이주민 출신국가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타민족 출신의 사람과의 결혼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문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적 태도가 달리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2003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한 장승진(2010)의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68.8%)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제적 기회를 둘러싸고 직·간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대개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인 경우)일수록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구의 경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이며, 특정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 사회의 비숙련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고용경쟁이 심화되게 되고 임금구조의 양극화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겨서, 개인의 기술숙련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Mayda, 2006; Scheve and Slaughter, 2001).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명진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이 대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주요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고학력자들은 외국인들을 특별히 경쟁상대로 간주하지 않는 반면,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학력에 따라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태도 변화

다문화사회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모두가 다문화적 지식과 인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McPhatter and Ganaway, 2003), 주류문화와 이주문화의 상호공존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김관희·이춘옥, 2009). 이처럼,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민족적·인종적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고 타 문화집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은 한국인들의 다문화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이주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타문화권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해주는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김금미, 2010; 김용신, 2009; 성상환, 2009).

이른바, 다문화 태도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정한 행동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주민은 새롭게 정착하게 된 주류사회에 대해서, 주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내국인은 이주민에 대해서 상호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

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ourhis, Barrette, El-Geledi and Schmidt, 2009). 이 과정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은 각기 다른 문화간에 존재하는 동질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행동과 습성, 심지어 고정된 사고방식까지도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응(acculturation)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태도를 결정짓게 된다. 다문화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사회적 태도(social attitude)는 한번 형성되면 잘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태도의 특성상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서 한번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으며, 어떤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학습된 사전적 경향(predisposition)”이 강하다(Allport, 1935; 윤인진 외, 2010: 40 재인용). 그렇지만 사회적 학습의 결과물로 이해되는 태도란 것도 지속적인 교육적 기회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선입견은 특정한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미지와 사전 정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문화적 태도 또한 특정한 인구집단과의 접촉과 상호교환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문화적 태도의 성격 또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태도변화는 교육적 기회에 장기간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이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주민과 이주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태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타문화권과의 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상호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주민과 내국인간의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Boske, 2007; Dinh and Bond, 2008; Rohmann, Piontkowsk and Randerborch, 2008).

비록, 다문화교육이 개인의 문화적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항상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문화 태도 및 인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Bennet, 1999).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사회에서의 고등교육기관들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장차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리더들에게 다문화적 소양을 가르치고,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가치 그리고 다문화적 행동을 갖출 수 있는 학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Munroe and Pearson, 2006). 하지만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다문화 태도란 것이 어떠한 교육적 기회와 여건이 훌륭하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기간동안 다문화적 지식과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다문화태도는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해 온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의 축적과 개인의 문화정체성의 정립을 요구하므로(Banks and Banks, 1995), 대학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다문화적 소양을 가르치는 등 다문화 관련 교과과정의 개발하는 일은 이주민과의 공존이 일상이 될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학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인구집단과의 실천활동을 강조하는 학문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원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문화에 대한 선지식을 습득하고 다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하겠다(Abrams and Gibson, 2007). 이는 최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다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주민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주민과 타문화권의 생활양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실례로,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 노출되고 접할 기회가 많을수록, 아시아 민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Kim and Park, 2008). 그리고 대학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대학생들이 인종차별에 맞설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효과가 매우 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증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Cichelli and Cho, 2007). 따라서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누적되게 되고, 다문화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서 범세계적 관점과 태도(global perspective)와 이주민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즉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집단간의 사회통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간문화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다문화교육이 우리사회에서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을 연구한 김금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가지는 등 다문화 수용적 행동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진구(200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수업을 수강한 이후 대학생들의 교류경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앞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높아지게 되는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마디로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종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김관희·이춘옥, 2009), 이주민과 내국인간의 상호이해와 평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는 사회통합적 수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스스로 가지게 되며, 이러한 의지가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다문화 태도를 가지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Boske, 2007). 교육적 효과를 통한 피교육생의 태도변화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잘 알려진 Bloom(1999)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적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의 태도변화는 일정한 지식이 개인의 정서를 자극하고, 그것이 고도의 정신기능으로 승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Munroe and Pearson, 2006: 822 재인용).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Banks(1999)는 교육과 태도변화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역동적 변화모델(transformative approach)'을 개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축적되게 되면(know),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care), 그러한 감정적 평가에 따른 행동(act)들이 뒤따르게 된다고 한다(Munroe and Pearson, 2006: 821 재인용). 이를 다문화교육에 적용하여 보면, 다문화교육이 학생들의 다문화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1수준: 다문화 지식), 그에

따라 학생들은 이주민 집단에 대한 공감능력이 커지게 되고, 다문화 지식을 내재화하여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케어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근거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2수준: 다문화 실천기술). 그리하여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3수준: 사회적 행동).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3가지 수준의 태도변화의 맥락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문화사회복지 전문가양성 프로그램(10주 주2회, 매회기별 3시간, 총 60시간의 특별강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0년도 9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총 20개의 특별강좌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대학교수 13인(사회복지학 박사 10인, 교육학 박사 3인)과 현장활동가 7인이 강사로 초빙되었고, 이들 강사들이 각각 한 강좌씩 맡아서 운영되었다. 실험집단은 부산시 D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45명이었으며, 통제집단으로는 동일대학의 동일한 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47명의 대학생들로 구성하였다.

####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유사실험조사설계인 비동일통제집단전후비교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t=.861, p=.391$ ), 두 집단의 비교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3개월 뒤에 추후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표 1> 실험조사설계표

집단	사전조사	프로그램	사후조사	프로그램 종료	추후조사	N
실험집단	O <sub>1</sub>	χ	O <sub>3</sub>	3개월	O <sub>5</sub>	45
통제집단	O <sub>2</sub>		O <sub>4</sub>		O <sub>6</sub>	47
시기	2010. 9		2010. 12		2011. 3	

### 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다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다문화 전문가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여, 다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문화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타문화권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국인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태도의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강의 주제와 교육내용을 소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주제		교육 내용
다 문 화  지 식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배경	·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연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시대적 과제를 설명 ·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직면하게 될 사회문제에 대해 설명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다문화사회복지의 정책적 방향을 설명 · 다문화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의 기본원칙 및 주요 개입기술에 대해 설명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및 이주정책	·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주정책과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모 · 최근의 이주민 유입증대에 따른 사회정책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주요 이슈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에서의 가족문제를 설명 ·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실천기법에 대해 설명
	이주노동자의 특성 및 주요 이슈	· 이주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인구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설명 · 이주노동자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설명
	새터민의 특성 및 주요 이슈	· 새터민의 한국사회 유입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설명 · 새터민의 문화 이데올로기 및 가치충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입 방법을 설명
	다문화 아동의 특성과 주요 이슈	·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 논의 · 다문화 아동의 발달과업과 다문화가정 부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과 주요 이슈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라발달과업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고찰 ·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원조할 수 있는 교육체계에

		대해 설명
	외국의 다문화 접근사례	· 서구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전개양상과 주요 이슈별 다문화정책에 대해 설명 · 서구의 경험을 통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방향성 토론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조사기법	·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조사기법에 대한 이해증진 · 다문화사회복지 사회조사시 유의하여야 할 조사윤리적 문제와 조사자로서의 자세 설명
다 문 화	다문화사회복지실천 과정 및 모델	· 다문화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주요모델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이슈 고찰 ·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가져야 할 문화적 태도에 대해 토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소개하고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의 방향제시 ·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방향을 제시
실 천 기 술	다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실제 사례의 검토를 통한 학습자의 심화학습 도모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실무를 워크샵 형태로 실제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경험 축적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 다문화상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담가로서의 자세와 개입기술 연마 · 다문화 상담의 개입모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법 연습
	이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와 개입	· 이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정신건강적 문제에 대한 이해증진 · 이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방법 설명
	이주민의 인권문제와 개입	· 이주민이 겪는 한국사회에서의 경험하게 되는 인권침해 사례 설명 · 한국인이 이주민과 상호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토론
사 회 적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형성과정에 대해 설명 ·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행동가로서의 역할 설명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 이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설명 · 이주민의 사회적 차별극복을 선도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 토론
행 동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유능성 강화방안	·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변화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적 유능성 강화방안 설명 · 다문화사회복지 실천가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행동토론
	다문화사회에 따른 한국사회의 도전과 과제	·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준비와 도전적 과제에 대해 설명·토론 ·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과 소통의 방법을 토론

#### 4)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다문화태도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의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다문화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unro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MASQUE: 18항목,  $\alpha = .80$ )과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TMAS: 20항목,  $\alpha = .86$ ), 그리고 Jibaja 및 그 동료들이 개발한 Multicultural Sensitivity Scale(21항목)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졌다(Ciccehelli and Cho, 2007; Jibaja, Sebastian, Kingery and Holcolmb, 2000; Munroe & Pearson, 2006; Ponterotto, 1998). 먼저 위의 척도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 및 태도에 관한 문항들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각 문항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문항을 결정하였다. 본 척도의 최종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Likert 척도 형식의 6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정되었다(부록 참조).

본 척도의 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은 상기 기존의 척도 문항과 연구자들이 추가한 문항을 포함하여 애초 총 23문항을 구성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 내용 중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문항 3개를 삭제한 후 총 20개의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본 척도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224명의 대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신뢰도 검증방법인 내적일관성 검사에서 Cronbach's  $\alpha = .877$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에 묶힌 항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4개의 요인 즉 거부감, 적극성, 보수성, 개방성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의 내용은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구성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척도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다문화태도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의 주요 내용

요인	내용	문항 수	Cronbach's $\alpha$
거부감	외국인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은 어색하다 외국인의 증가에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믿고 신뢰 한다 외국인의 증가는 전통 유지에 좋지 않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반대 한다 문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불편하다	6	.745
적극성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다 외국인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싶다 외국인이 이웃에 사는 것은 괜찮다 외국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다	5	.768
보수성	다른 문화의 사람과 접촉은 피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교사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과정에 다문화 내용 포함은 가치관 혼란을 야기한다 다문화에 대한 소양과 이해가 필요하다	5	.731
개방성	다문화사회는 한국의 선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4	.740

	다문화 이해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하다 외국인은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중매체 노출은 개방화에 도움이 된다		
전체		20	.877

##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태도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문화태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t-검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다문화태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 4.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두 부산시 소재 D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므로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92명이며, 남학생(34.8%), 여학생(65.2%)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2학년(19.6%), 3학년(40.2%), 4학년(33.7%)으로 3, 4학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대학원생(6.5%)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약 11.0%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2)

특성	내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2	34.8
	여성	60	65.2
학년	2학년	18	19.6
	3학년	37	40.2
	4학년	31	33.7
	대학원	6	6.5
다문화 교육경험	있다	10	10.9
	없다	82	89.1
집단 구분	실험집단	45	48.9
	통제집단	47	51.1

## 2)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된 다문화태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 .877$ 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에게 척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다문화태도에 대한 문항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 및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다문화태도는 4가지 하위요인 즉 거부감, 적극성, 보수성, 개방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다문화태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N=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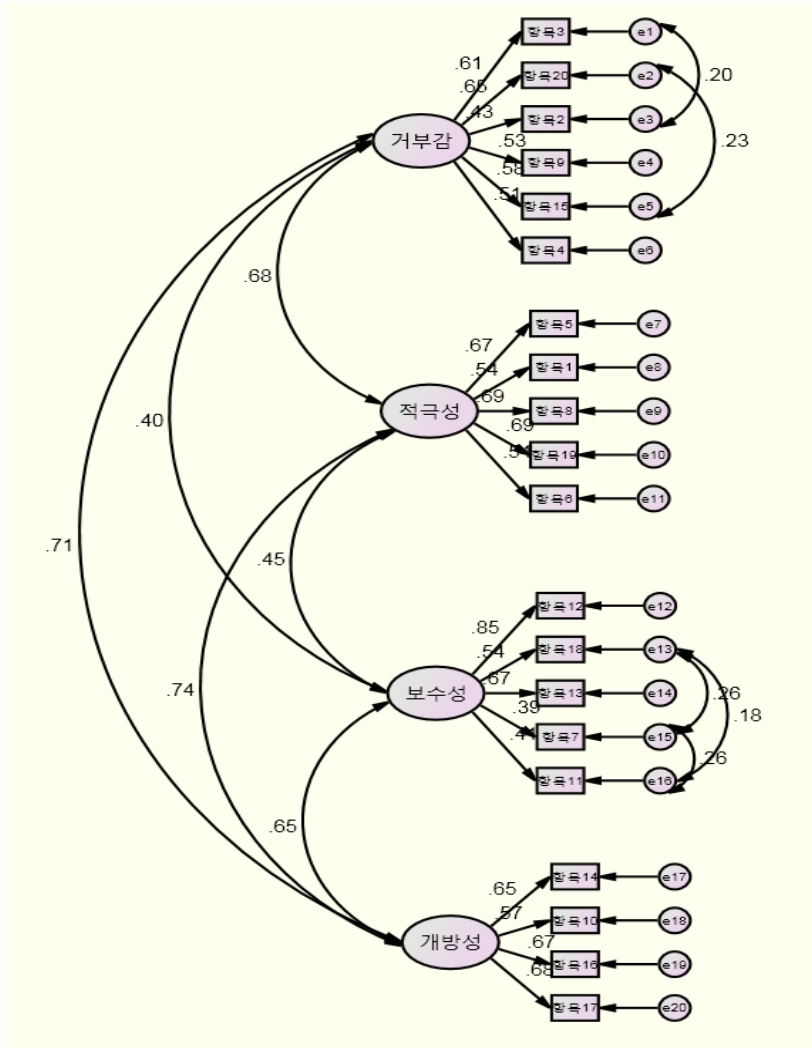
	요인*			
	거부감	적극성	보수성	개방성
항목3	.584	.208	.180	.084
항목20	.547	.122	.241	.292
항목2	.530	.089	.031	-.015
항목9	.517	.141	.105	.115
항목15	.504	.045	.183	.361
항목4	.435	.150	-.021	.185
항목5	.031	.693	.176	.234
항목1	.125	.596	.051	.067
항목8	.245	.571	.125	.198
항목19	.383	.476	.142	.248
항목6	.390	.436	.124	-.006
항목12	-.047	.171	.732	.297
항목18	.308	.043	.602	.107
항목13	-.099	.073	.548	.399
항목7	.451	.242	.490	-.111
항목11	.180	.080	.474	-.001
항목14	.182	.205	.183	.696
항목10	.221	.375	-.001	.443
항목16	.200	.286	.330	.403
항목17	.215	.304	.303	.385

\* 요인추출 방법: 주축 요인추출,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각 항목과 요인 간에는 세 항목(.39, .43, .44)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계수가 .45~.85로 나타나 Tabachnick and Fidell(2007)이 제시하는 기준인 good(.55)에 가깝고 excellent(.71~)의 기준도 일부 만족시키고 있어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척도의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 계수는 .45~.74로 나타나 모두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의 기준점이라고 인정되는  $r = .85$ 이하로(Kline, 2011) 나타났으므로 판별타당도 또한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Rubin & Parrish, 2011). 따

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본 다문화태도 척도는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어, 구성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ubin, 2008)

1). 아울러 동일집단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척도의 민감도(sensitivity)에 대해서도(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실험집단의 사전(M=4.65)와 사후조사(M=5.04)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다문화태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24, 표준화계수)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게 된 경우 이때의 타당도를 요인타당도(factorial validity)라고 부르며, 이 요인타당도를 별도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구성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로 해석하는 연구자들도 있다(Rubin, 2008, p. 241).



### 3) 집단의 동질성 검증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집단이 비교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조사대상자의 몇 가지 특성인 성별, 학년, 교육경험 유무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는 성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chi^2=1.349$ ,  $df=1$ ,  $p=.245$ ), 극히 소수인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학년별 두 집단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070$ ,  $df=2$ ,  $p=.079$ ). 다문화관련 교육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도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사를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바 통제집단에서 실험집단보다 교육 경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7.4% vs. 4.4%), 통계적으로 간신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898$ ,  $df=1$ ,  $p=.048$ ). 그리고 무엇보다 동질성 검증을 위해 중요한 것은 두 집단 간 사전검사의 결과인데,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다문화태도에 대한 사전검사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861$ ,  $p=.391$ ). 따라서 두 집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비교가 가능한 초기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사전점수에 대한 t-검증

집단	N	M	SD	S.E	t	p
실험	45	4.652	.441	.066	.861	.391
통제	47	4.573	.440	.064		

###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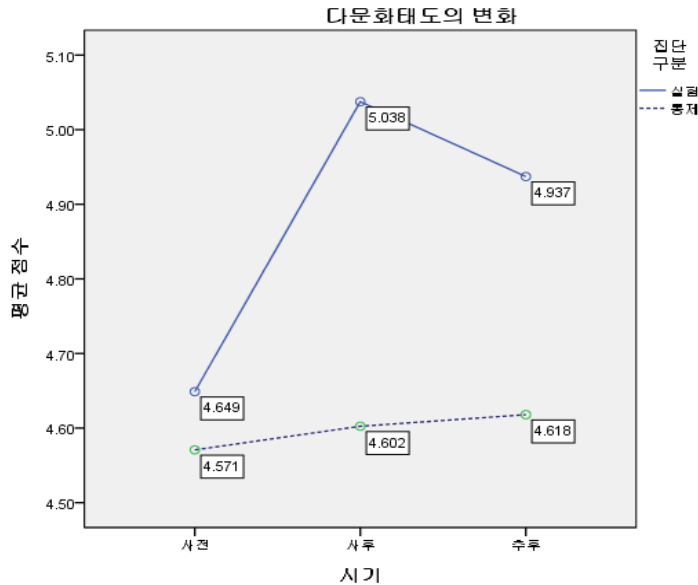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있어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의 차이, 그리고 사전점수와 추후점수간의 차이를 가지고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사후 차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t=4.264$ ,  $p=.000$ ), 사전-추후 차이에서도 두 집단 간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2.466$ ,  $p=.016$ ).

즉 실험집단에서는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추후검사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 및 사전-추후 점수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7> 집단 간 차이 점수에 대한 t-검증

		N	M	SD	S.E	t	p
사전-사후 차이	실험	45	.378	.440	.066	4.264	.000
	통제	47	.036	.323	.047		
사전-추후 차이	실험	44	.288	.529	.080	2.466	.016
	통제	45	.047	.383	.057		

이상의 t-검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점수를 반복측정 분석한 결과를 아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에서는 사후점수(5.038)가 사전점수(4.649)에 비해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추후점수(4.937)에서도 약간의 감소는 있으나 사전점수와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점수(4.571), 사후점수(4.602), 추후점수(4.618)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체 내 효과 검증 결과로서 시기집단에 있어서 사전-사후는  $F=19.287(p=.000)$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고, 사후-추후는  $F=1.268(p=.263)$ 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다문화태도에 대한 반복측정 분석결과

## 5. 결론 및 제언

이제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G20에 가입하는 등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국제적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태도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는 하나,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인은 이주민이나 다문화적 소수집단과 직접 만나거나 교류한 경험이 거의 없고, 다문화교육의 대상 또한 일부 직종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민무속 외, 2009; 윤인진 외,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복지실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성, 즉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성의 증가는 다문화사회로의 이전이라는 사회변동이 야기하는 파생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과 기술을 생산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의 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역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주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교육에 참가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태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전술한 분석결과 중 주요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실시한 집단의 동질성 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다문화태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t=.861, p=.391$ ), 두 집단 간의 초기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실시된 사후조사를 사전조사와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t=4.264, p=.000$ ), 사전-추후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66, p=.016$ ). 그리고 실험집단에서는 사전-추후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도 교육적 효과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검사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추후점수를 반복 측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는데, 실험집단에서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사전점수를 추후검사의 값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추후검사의 값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험집단의 경우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문화교육이 내국인의 다문화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현덕, 2010; 김판희·이춘옥, 2009; 민무속 외, 200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가 이주민과 타문화와의 통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형태의 다문화교육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다문화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다문화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듯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관

런 사업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관련 전공자들에게도 다문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는 이들 기관들의 다문화사업의 수행에 많은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아이치현, 구마현, 가나가와현 등에서 이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상담기법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다문화 소셜워크',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와 같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민무속 외, 2009: 32).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2월에 발표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 교육 강사와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이중언어교사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상담가양성에 대해 언급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교사들의 다문화 이해 역량향상과 다문화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법무부 지원 하에 '다문화사회전문가과정'을 진행하는 ABT(Active Brain Tower)대학의 선정 등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전문가 양성과정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다문화교육의 현장과 대상은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국마다 다문화교육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적 상황에 맞고 한국적 다문화이론에 입각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국제이주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제 다문화주의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은 다문화사회를 선도해 나갈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교육적 측면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다문화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되기도 하고, 몇몇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다문화사회복지론을 위시로 한 다문화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 관련 학과가 만들어지고 다문화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수자가 다문화적 교수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면 다문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구집단의 생활방식과 문화적응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는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대학 차원에서는 다문화 교수법 개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심층적인 수준의 다문화태도의 변화는 이주민과의 접촉경험과 타문화권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20개의 강좌로 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의 다문화태도가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내용에 대한 보다 치밀한 사전작업과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을 담당할 20명의 강사에게 일임하다 보니, 강의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다

문화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래 한국사회를 전망하면서, 우리사회가 보다 진보된 형태의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대학생의 통합적인 다문화태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모형을 개발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다문화 교육경험을 축적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꾸준히 검증하는 후속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진구. 2008. “다문화교육이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문화연구』, 1: 53-77.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권 2호: 5-34.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김용신. 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지향과 실행전략”. 『사회과교육』, 48(1): 13-25.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관희·이춘옥. 2009. “유아용 다문화에 대한 인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아동교육』, 18(4): 131-142.
- 김현덕. 2007.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비교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4): 1-23.
- \_\_\_\_\_. 2010. “다문화교육의 내용체계 구축과 실천방안”. 『비교교육연구』, 20(5): 109-134.
- 민무숙·김이선·이춘아·이소영. 200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 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박수미·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6.
- 박인철. 2010. “상호문화성과 윤리-후설 현상학을 중심으로-”. 『철학』, 103: 129-157.
- 설동훈. 2006. “국민 민족 인증: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설동훈·김영아. 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 성상환. 2009.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아시아의 다문화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인천교육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 신승연. 2009.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45-74.
- 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정혁.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옥경·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오계택·이정환·이규용. 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1): 91-117.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72-103
-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경기도: 예담.
- 이명진·최유정·최선희.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인태정. 2009.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임 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7.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2010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5월호. 보도자료.
- 천선영. 2004. "다문화사회 담론과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363-380.
- 최명민·이기영·최현미·김정진. 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영식. 2009. "간문화성의 역사·행위영역·기본개념-유럽과 독일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9(4): 238-266.
- Adams, L. S. and P. Gibson. 2007. "Reframing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ing white privilege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3(1): 147-160.
- Allport, G.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pp. 798-844.
- Ahn, J. H. 2007. "A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ory grief and depression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in the US".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219-253.
- Banks, J. A. 1999.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2nd ed). MA: Allyn and Bacon.
- Banks, J. A. and C. A. M. Banks. 1995.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NY: Macmillan.
- Bennet, C. 1999.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4th ed). MA: Allyn and Bacon.
- Bitoni, C., E. Albers and T. Reilly. 1996. "Multicultural competence in Nevada human services: a statewide survey".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4(4): 67-83.
- Bloom, B. S. 1999. "The search for methods of instruction". In Ostein, A. C. and L. S. Behar-Horenstein(Eds). *Contemporary issues in curriculum*(2nd ed). MA: Allyn and Bacon.
- Bonecutter, F. and J. Gleeson. 1997. "Broadening our view: Lessons from kinship foster car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5(1-2): 99-119.
- Boske, C. 2007. "The awakening: the multicultural attitudes and actions of chief executive school

- offi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21(6): 491-503.
- Bourhis, R. Y., G. Barrette., S. El-Geledi., and R. Schmidt Sr. 2009. "Acculturation Orientations and Social Relations between immigrant and host community members in Californi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3): 443-467.
- Boyle, D. and A. Springer. 2001. "Toward a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social work with specific populations". *Journal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9(3): 53-71.
- California Endowment. 2003. *Principle and recommended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Thousands Oaks, CA
- Castles, S. and M.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4th ed). NY: Guilford.
- Ciccehelli, T. and S. Cho. 2007.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9(3): 370-381.
- Dhinh, K. T. and M. A. Bond. 2008. "The other side of acculturation: Changes among hos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their adaptation to immigrant popul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 283-285.
- Epstein, R. and E. Hundert. 2002. "Defining and assessing professional competence". *JAMA*, 287(2): 226-235.
- Hewstone, M. 2003. "Intergroup contact: Panacea for prejudice?". *Psychologist* 16(7): 352-355.
- Jibaja, M. L., R. Sebastian., P. Kingery., and J. S. Holcolmb. 2000.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of physician assistant students". *Journal of Allied Health*, 29(2): 79-85.
- Kim, Y., and S. Park. 2009. "Reverse Acculturation: A new cultural phenomenon examined through an emerging wedding practice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7(3): 359-375.
- Kline, R.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ymlicka, W. 2004.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2):147-169.
- Lum, D. 2005. *Cultural competence, practice stages, and client systems: a case study approach* Belmont, CA: Brooks/Cole.
- Mayda, A. M. 2006.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3): 510-530.
- McPhatter, A. R.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5-278.
- McPhatter, A. R. and T. L. Ganaway. 2003. "Beyond the rhetoric: Strategies for implementing culturally effective practice with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Child Welfare*, 82(2): 103-125
- Munroe, A. and C. Pearson. 2006.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819-834.
- Ponterotto, J., et al, 1998. "Development and initial score validation of the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8: 1002-1016.
- Rohmann, A., U. Piontkowsk., and A. V. Randerborch. 2008. "When Attitudes do not fit: Discordance

- of acculturation as an antecedent of intergroup threa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3): 337-352.
- Rubin, A. 2008. *Practitioner's Guide to Using Research for Evidence-Based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pp. 239-241.
- Rubin, A. and D. Parrish. 2011. "Validation of the evidence-based practice process assessment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1(1): 106-118.
- Scheve, K. F. M. J. Slaughter.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tephan, W. G., R. Diaz-Loving., and A. Duran. 2000. "Integrated threat theory and intercultural attitudes: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Psychology* 31(2): 240-249.
- Sue, S. and Sue, D.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abachnick, B. and L. Fidell.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5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in P. Magocsci(eds.).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997-1006.



##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Hwang, Sung-D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m, Hyuk  
(Dongseo University)

Yun, Sung-Ho  
(Dongseo University)

This study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the program was designed to offer them a series of twenty lectures for three months, 60 hours in total, and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participants of both experimental group(N=45, Mdiff=.378) and control group(N=47, Mdiff=.036) on their attitudes on cultural diversity. Also, pre-test and follow-up test scores were compared to confirm whether the effect was sustained.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pre-post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 $t=4.264$ ,  $p=.000$ ),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for control group students.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sustained among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t a 3-month follow-up test( $t=2.466$ ,  $p=.016$ ). In conclusi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in fact, proved to be effective in changing the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in understanding and accepting different cultures in Korean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attitude, quasi-experimental design, program effectiveness

[논문 접수일 : 11. 09. 20, 심사일 : 11. 09. 29, 게재 확정일 : 11. 12. 01]

<부록> 다문화태도 척도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아래의 문항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내용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고 싶다						
2. 문화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3.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4. 외국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믿고 신뢰하는 편이다.						
5.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다						
6.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사는 것은 괜찮다						
7.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는 서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8.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돕고 싶다						
9. 문화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10.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11. 요즘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12. 우리나라에 점차 외국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들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쌓은 것이 필요하다						
13. 다문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14. 다문화 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5.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사회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17. 대중 매체에서 다문화 가족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개방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18. 초·중·등 교과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19.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20. 외국인과의 결혼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여기서 다른 나라는 주로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지칭한다.